



일교차 큰 환절기, 축종별 가축 관리 요령은?

- 충분한 사료와 깨끗한 물 공급, 축사 청결하게 관리
- 한우·젖소는 영양과 위생, 돼지·닭은 온도와 환기 관리에 유의
- 출입 차량·사람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가축 질병 예방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축산과학원은 환절기를 맞아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 환경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.

△**한우**는 더위로 줄었던 사료 섭취량이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양질의 사료를 충분히 공급한다.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, 급수기와 사료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. 또한, 번식우 발정을 세심하게 관찰해 적기에 수정한다. 신생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고 보온에 신경 써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한다.

△**젖소**는 여름철 고온으로 감소했던 사료 섭취량과 산유량이 회복되는 시기인 만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.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급수 환경을 관리하고, 영양소 요구량이 많은 분만 초기 젖소는 사료 섭취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.

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유방염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. 축사와 착유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, 착유 기구도 철저히 세척·관리한다.

△**돼지**는 일교차에 민감하므로 돈사 내부 온도와 환기를 세심하게 관리한다.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,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돼지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.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이유자돈은 보온 상태를 수시로 점

검한다.

보온을 위해 돈사를 지나치게 밀폐하면 내부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. 외부 기온과 돈사 내부 상태를 살펴 적절히 환기한다. 외부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, 돈사 내부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.

△닭은 계사 안으로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.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대비해 난방시설도 미리 점검한다.

계사를 지나치게 밀폐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고 병원체가 퍼질 위험이 있으므로, 적절히 환기한다. 습도가 높으면 깔짚이 잘 마르지 않고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계사 내부 습도와 깔짚 상태도 살핀다.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, 야생조류가 계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한다.
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“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가축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.”라며 “농가에서는 축종과 성장 단계에 맞춰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, 축사 온도와 환기, 위생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.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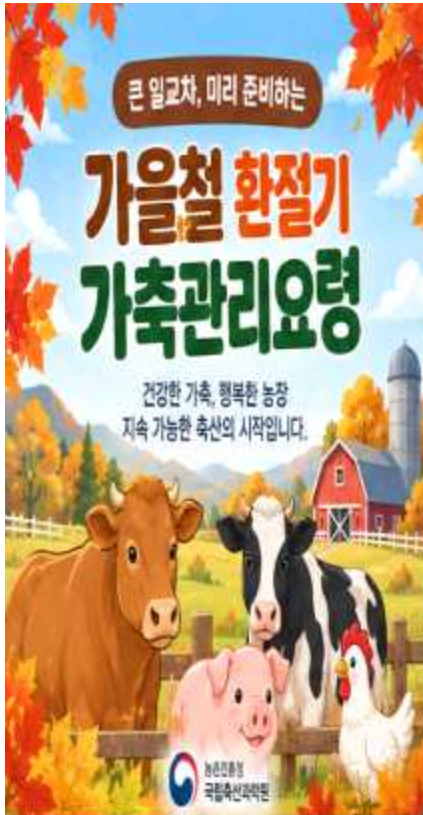
붙임. 축종별 관리 요령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	책임자	과 장	최소영 (063-238-7200)
	기술지원과	담당자	연구사	이경은 (063-238-7203)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				

□ 가을철 환절기 가축관리 요령 카드뉴스(안)

큰 일고차, 미리 준비하는
**가을철 환절기
가축관리요령**

건강한 가축, 행복한 농장
지속 가능한 축산의 시작입니다.



농촌진흥청
국립축산과학원

01 한우 충분한 사료와 물,
송아지 건강을 세심하게!

튼튼한 송아지가
더 큰 내일을 만듭니다.

- 양질의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관리
- 급수기와 사료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소화기 질병 예방
- 번식우는 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적기에 수정
- 신생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보온에 신경 써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예방

02 젖소 영양 보충과
착유 위생관리로 생산성 UP!

건강한 젖소가
좋은 우유를 만듭니다.

- 사료 섭취량과 산유량이 회복되는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
-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급수 환경 관리
- 분만 초기 젖소는 에너지와 영양소 요구량이 많으므로 사료 섭취상태를 세심하게 살림
- 유방염 예방을 위해 착수와 착유실, 착유기구를 깨끗하게 관리

03 돼지 일고차를 고려한
돈사 환경관리가 중요합니다!

건강한 돼지가
농장의 경쟁력입니다.

- 일고차에 민감하므로 돈사 내부의 온도와 환기를 세심하게 관리
-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
- 이유자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보온 상태를 점검 하고 적정 사육 환경 유지
- 돈사를 지니치게 밀폐하지 말고, 유해가스 농도를 고려해 적절한 환기
- 외부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철저
- 돈사 내부를 정기적으로 소독

04 닭 보온만큼 환기도 중요!
깨끗한 깔짚 관리가 핵심입니다.

건강한 닭이
안정적인 생산으로
이여줍니다.

- 계사 안으로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
-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대비해 난방시설 미리 점검
- 보온을 위해 지니치게 밀폐하지 말고 적절한 환기 유지
- 습도와 깔짚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 병리성 미생물 증식 예방
-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과 소독 철저
- 야생조류가 계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

**꼼꼼한 관리로
가축은 건강하게,
농가는 더 큰 행복을!**

가축의 건강이
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만듭니다.

- 충만한 영양공급
- 적절한 환기관리
- 육사 소독
- 차단방역 철저

농촌진흥청
국립축산과학원